

사주했다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안 됩니다. 35평 사주세요" 하고 마음대로 35평 아파트 계약서를 형님앞에 갖다놓는다면 형님마음이 어떨겠어요. 정이 떨어지고 밉겠지요. 아마 20평도 사주지 않아요. 반대로 동생이 "형님 그제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15평도 참 좋습니다" 하고 15평 계약서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형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요. 아이고 저 동생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잘해 줬아니. 사소한 예지만 양보의 미덕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데 그냥 기를 쓰고 많이 얻고 남위에 올라서려 하고 그제 제일인줄 알지요. 요새 노자강의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는데 그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교육방법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 누가 뭐라 안해도 달라집니다. 강요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해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지요.

- 30년전 용주사 주지로 계실때, 아직 교계에 사찰수련회가 없고 인신도 안돼 있던 때부터 용주사에서 수련대회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용주사에 효행관이 있어 청소년 교육에 앞장서고 있지요. 핵가족화가 되어 어느 가정이나 아이가 하나나 둘 밖에 없어 귀하게 자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효 개념도 점점 희박해 갔어요. 청소년들에게 효 관념을 심어 주는데 사찰이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당시 방학때는 사찰일을 전폐하고 다녔지요. 그때는 부모은혜 10가지를 설명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했지요. 요새는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사람의 본질이 자비심입니다. 자비한 마음이 보살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모 아니예요? 효 사상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에게 잘 하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 국가로 확산해야 합니다. 가정윤리에 머물지 말고 사회윤리 국가윤리 세계윤리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거지요. 효라고 따로 이름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본질인 자비심을 이 시대에 적극 현양하자. 나무자.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사찰에서 수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릴때부터 교육시킨다면 효과가 크겠지요.

- 요즘 원조교제나 마약이니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합니다. 신세대들이라고 해서 예전과 같은 교육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합니다. 부모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지요?

▲ 평상심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라 부모라는 심성과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 하면 팔팔 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어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진 부모 밑에서는 가솔하는 청소년이 안 나와요. 실속 가솔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졌어요. 거지꼴이 돼 가지고 고생하겠지요. 그러면 친구와 가지고 술집에서 심부름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후손에 방도 없이 떨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때 아무말 말고 돈이 필요하겠다 이든 갖다 주어야 해보세요. 그러면 손오공이 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다섯가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아말로 매일매일이 즐겁고, 봉사도 잘하게 된다고 강조하시는 정무스님.

“은혜 갚을 줄 알아야 보살 힘 닿는대로 봉사하세요”

무리 날아기도 부처님손바닥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슬쩍 이런말이 들어가게 함마디 해보세요. "사람은 그런 고생도 해 봐야 돼" 또 부를 명분도 생기잖아요. 그러한 어진 마음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도 안 놓입니다. 백발백중 다 다시오게 되어 있어요. "이놈아. 다시 나갈까" 팔팔 뛰며 야단치고 광에 가두고 묶어놓아도 소용없어요. 마음을 움직이도록 해야합니다. 부모가 평상심을 갖고, 자비심으로 대하면 하나도 잘못 되지 않습니다.

- 불교가 21세기의 희망이고 대안이라고 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정착시키고 도덕을 선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 일심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본질로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5계만 잘 지켜도 도덕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무슨 종교나 할 것 없이 정신들이 없어요. 돈 벌어서 자기 교세나 늘리려고 하고... 오계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불자가 많아진다면 그 사회는 밝아지고 깨끗해 집니다. 불교신자부터 깨어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의 부모를 향한 효성을 이룩해, 인류로 확대하는 것이 인간성숙의 도이고 이 웃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잘사는 나라, 선진국들의 국민들을 보세요. 자기 힘대로 여건달라대로 봉사 안합니까?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 갚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잘 갚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 신도들에게 해주시는 법문중에 불교신앙과 자연건강, 여행을 자주 하라 이 세가지를 항상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종교신앙을 확고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불교적인 세계관으로 사물을 대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위는 너무도 건강치 못한 환경이예요. 공해뿐이지요. 건강에 대한 고도정보를 얻어 섭생을 잘 해야 합니다. 건강자체가 목적이 아니예요. 건강해야 수행도 봉사도 합니다. 우리 생의 목적인 깨달음을 위해서도 건강이 중요하지요. 평생 건강에 유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못 고칠 병은 없어요. 못 고칠 습관만 있을 뿐이지. 건강은 습관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예요. 수행도 똑같아요.

그리고 먹고 입는 것을 절약해 여행을 하세요. 우리나라도 보고 세계도 보고 해야 합니다. 내가 불교에 관계되는 나라는 거의 가 보았습니

다. 선진국 사람들이 여행 많이 한다고 그러지요. 거의 정년퇴직한 노인들이예요. 그런데 그건 못습니다. 여행도 젊었을 때 해야 합니다. 여행에서 얻은 그 경험 그 풍부한 감수성을 실생활에 써야 풍부하고 넓은 사고를 가진 건전한 인간으로 자라납니다. 세계는 넓고 갈데는 많다. 중국 미국 인도만이라도 꼭 가보도록 권합니다. 인도는 가장 영광스러운 문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귀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물어요.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참선할 때 집중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도 중요하합니다. 나에게 불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확신이 깔려있어야 수행이 제대로 되지요.

자꾸 세상이 어지러워 갑니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밖으로 휘둘러져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을 못차립니다. 그래서 수행이 더욱 필요하합니다.

대답=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 걸출한 선승 대선스님

가끔 신도들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스님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무어 걱정할 일이 없나. 힘든 일이 있나. 세상에 가장 편안한 사람이지요"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글썄... 스님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일까? 특히 고향사람이나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걱정 없는 사람, 팔자 놓여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할 말을 잃어버린다.

대체적으로 세상사람들은 스님들의 수행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 절에 오랫동안 다닌 신도들 가운데도 스님들의 생활이 무사안일한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정말 스님들의 수행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문경에 있는 회암산 봉암사의 객사에 명공 스님 선경스님 등 도반들 몇몇이 앉아있는데 대선스님께서 바람을 지고 들어오셨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인사를 나눈 뒤 대선스님을 앞에 모시고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대선스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이 바람에 들은 것이 무엇인줄 아나? 약보따리다"

평소 스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선스님이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 "약보따리다"하는 말을 할 때에 벌써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이라고 짐작을 했다. '스님이 무슨

약보따리 멘 대선스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려고 한다”

병에라도 걸렸나? 평소 스님의 성격으로는 우리를 같은 후배들이 특별한 병도 없이 몸이나 건강해지겠다고 약을 다려먹는 것을 보면 신심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약단지를 발로 걷어할 그런 분이기에 때문이다. 우리는 또 스님의 그러한 대개대용한 기질을 존경했다.

"자네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젊고 힘있을 때 공부에 힘쓰도록 해. 내 나이가 40이 넘어. 남들은 대선이 공부 잘 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니 몸은 약해지고 마음이 비장하다. 그래서 이 약 다려먹고 몸을 추스른 후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려고 한다. 내 대단한 결심을 했다"

그날 우리는 스님의 말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다시한번 발심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안의 공기는 자못 엄숙해졌고 대선스님은 우리에게 수행자가 공부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 어떤 법문보다도 소중한 법문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날 스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공부하면서 겪은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을 이야기해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행의 어려움을 새롭게 돌아보게 된 것이다. 곁들여 60년대 망월사에서 춘성노스님을 모시고 공부하던 것과 춘성노스님의 무애자재한 모습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탈출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했다.

그렇다. 스님은 보기도 못한 걸출한 선승이다. 한마디로 그분이 큰 분이시다. 8.15이후 우리나라 선승 가운데 가장 걸출하고 고준한 분을

꼽으려면 아마 누구나 춘성노스님을 들 것이다. 한데 그 춘성노스님 회상인 망월사에서 공부한 스님들 가운데는 걸출한 선승이 많았다. 그 걸출한 상족(上足) 가운데 한사람이 바로 대선스님이다.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앉았어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풍모를 가지고 있다. 얼굴에는 항상 광채가 났다.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걸걸하면서도 유창하다. 자세는 항상 단정하여 마주 대하고 앉으면 상대를 제압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너무 추켜세운다고 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을 딱 한번이라도 보지만 하면 내일이 지나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선스님이 나이 40 넘어 새롭게 출가하는 마음으로 공부에 일로매진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으로 발심했을 그때 바로 봉암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우리에게 항상 굳건한 기둥같은 분이었던 대선스님도 내면으로는 힘들어 할 때가 있었던 것이다. 수행이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다. 아니 큰 그릇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힘든 진풍이 뒤따르는 것이다.

나는 스님을 모시고 해인사 동지에서 몇 철을 살았는데 대중을 이끌고 가는 힘이 있어 스님이 회중(會中)에 있으면 모두들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스님은 천진한



그림·문병성

장난기도 많은 분이어서 대중들을 선동하여 엉뚱한 일을 하게 할 때도 있다. 한때 해인사에 오래 살기도 했었는데 방장이신 상철노스님으로부터 각별한 인정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스님은 누가 보아도 당시 선원의 지도자로 자리잡고 있었다 호연한 성품과 대개대용하는 기질이 장차 불교계의 큰 스승으로서 혹은 선각들의 지도자로서 대선스님이 될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우리 후배들의 바람과는 달리 해인사를 떠나고 이내 대중처소를 떠나게 되었다. 나는 스님의 세속 모친도 두 번 만나본 일이 있는데 아주 여중부다운 그런 분이였다. 그 모친께서도 스님이 큰절에서 대중들을 지도하는 그런 스님으로 날아오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하여튼 대선스님은 이런저런 것을 버리고 대중처소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당신의 세속집을 사찰로 만들어 그곳에서 벌써 20년째 두문불출한 채로 공부만 하고 계신다. 큰 스님이 어찌 총림이나 대 가람에서만 나오랴. 오히려 옛날 눈밭은 선지식들 가운데는 일정한 처소도 없이 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름도 없는 아주 작은 암자나 토굴 같은 곳에서 일생을 사신 분들이 많다. 나는 대선스님도 반드시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믿는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 탐영제 방생 —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물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 433-2900, 0303 (0655) 432-0652, 0072

■ 약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전국 유명 서점 및 불교서점 절찬리 판매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쉽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에서 생명이 샘솟는 듯 합니다.
소담은 하루를 시작하면 빗자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자루는 너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고 담백하고 완결한 문장이 참에 위한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 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가(餘技)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빙정스님 (동경)

혜총스님 지음 / 신국판 / 정가 8,000원 / 부다가야 | 514 052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333-2 전화 (051) 865-4383 · 팩스 865-4821

혜총스님의 중노릇